

# KCGS Report

제15권 11호 | 통권 제191호  
2025. 11.



한국ESG기준원

---

## KCGS Report 제15권 11호

발행일 : 2025년 11월 28일

발행인 : 이 정의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5권 11호 | 2025. 11.

## ● ESG 동향

-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2
- AI 기반 ESG 인식 분석 :  
환경보호·사회공헌 중심 오해의 현황과 함의 12
- 국내 금융회사 이사회의 연차 구성 현황 20

## ● Global News

1. 영국, ESG 등급 제공사 규제안 발표 27
2. EU(유럽연합),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29

# AI 기반 ESG 인식 분석 : 환경보호·사회공헌 중심 오해의 현황과 함의

양희원\*

- ▶ ESG가 단순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
- ▶ 그러나 ESG의 본질은 이해관계자 간 이익·손해를 조율하여 외부경제효과를 재무적으로 내부화하는 자본주의적 조정 장치라는 점임
- ▶ 본 보고서는 AI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ESG에 대한 대중적 인식 현황을 검토하고, ESG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 뉴스 키워드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기사 데이터 포털인 빅카인즈<sup>1)</sup>에서 추출

## 서론 : ESG는 단순 환경보호·사회공헌 활동인가?

- ESG는 단순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님
  - ESG가 단순히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ESG의 핵심적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ESG의 핵심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재무적으로 내부화(Internalizing)하는 데 있음
  - 즉, ESG는 단순히 '착한 경영'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비용을 기업의 재무적 판단 체계 안에 반영시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자본주의적 조정 장치에 더 가까움

〈그림 1〉 ESG = 외부비용의 내재화(Internalizing Extern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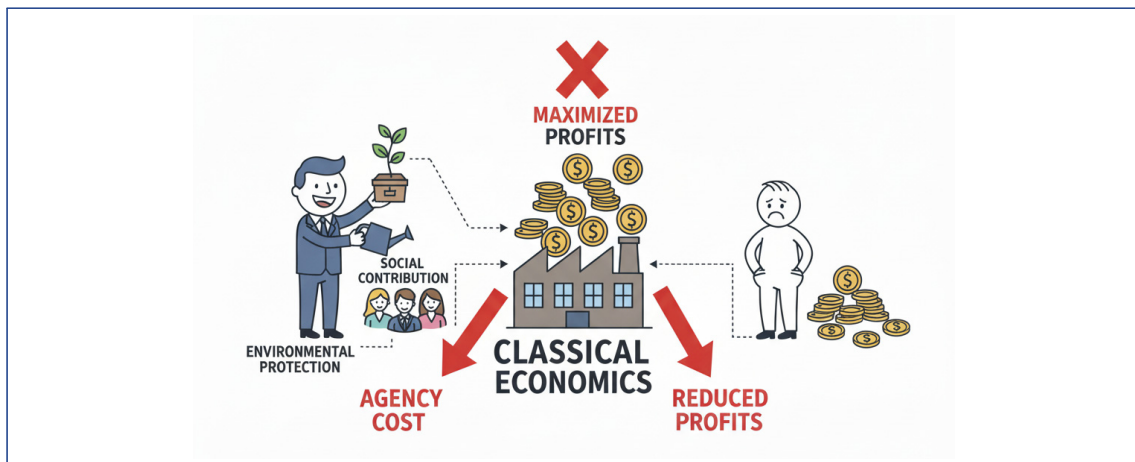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선임연구원, 미국공인회계사(State of Washington), hwyang@cgs.or.kr  
1) <https://www.bigkinds.or.kr/>

### □ 고전주의 경제학의 관점과 한계, 그리고 ESG의 부상

- 고전주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하에서 각 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전제함
-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환경보호 활동은 오히려 이윤 극대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 행위(대리인 비용; Agency Cost)로 인식됨
- 그러나 실제 경제 환경에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윤 추구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판단에 외부효과를 반영(내부화)해야 사회적 후생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ESG의 필요성이 부각됨

〈그림 2〉 고전주의 경제학 : 사회공헌이나 환경보호를 Agency Cost로 인식



### □ ESG의 개념 왜곡과 현황 연구의 필요성

- 현재 대중과 언론에서는 ESG를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의 확장 개념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인식은 ESG의 본질적 의미인 외부효과의 재무적 내부화를 배제한 채, ‘착한 이미지 소비형 ESG’로 변질시키는 문제를 초래함
- 따라서, ESG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고전경제학과 외부효과 개념의 한계를 파악하고, ② 기업의 환경·사회 이슈 대응 비용이 어떻게 재무적으로 내부화되는지 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본론 1에서 ESG의 경제학적 설명 기반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설명하고, 본론 2에서 AI 기반 기사 분석을 통해 ESG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왜곡 현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본론 1 : ESG와 외부효과의 재무적 내부화

### □ 대리인 비용 - 고전주의 경제학과 환경보호·사회공헌

- 고전주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각 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봄
- 대표적인 예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 The New York Times 기고문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일명 프리드먼 독트린)
- 프리드먼의 논리에 따르면,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은 이윤을 감소시키는 비용 요인으로 간주됨
- 즉,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경영자(대리인)가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을 자의적으로 수행하면, 이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발생으로 이어짐.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기보다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예시: 은행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채무자 탕감을 시행  
→ 이자수의 감소 → 배당 축소 → 주주 손해 → 사회 후생 감소

〈도식 1〉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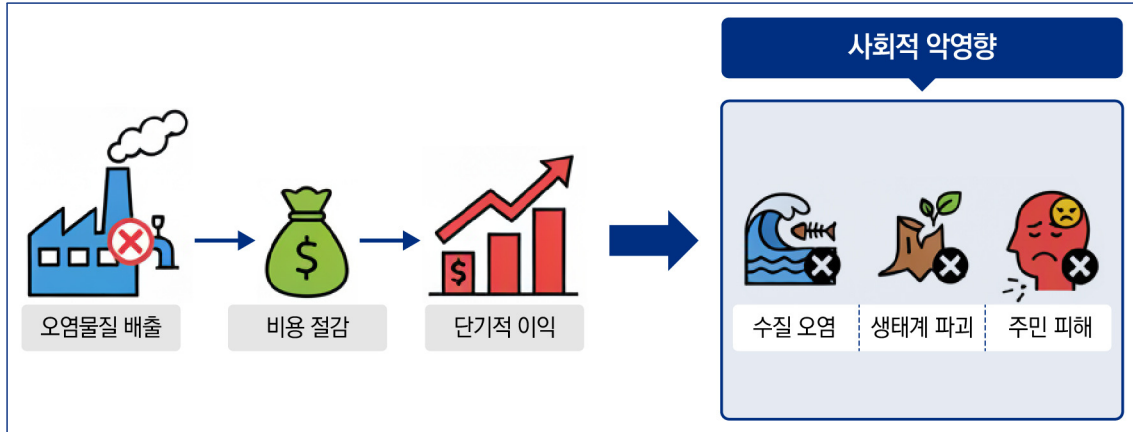


- 요약하면, 고전경제학 관점에서 E·S 활동은 재무적 관점의 비효율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세간에서 인식하는 ESG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 외부효과 - 이윤 추구만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은 정말 증가하는가?

-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도 사회 전체의 후생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 그 이유는 외부효과(Externalities)임
- 예시: 공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오염물질을 정화 없이 방류할 경우  
→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익  
→ 사회는 수질 오염·생태계 파괴·주민 건강 악화 등의 피해

〈도식 2〉 단순 이윤 극대화 추구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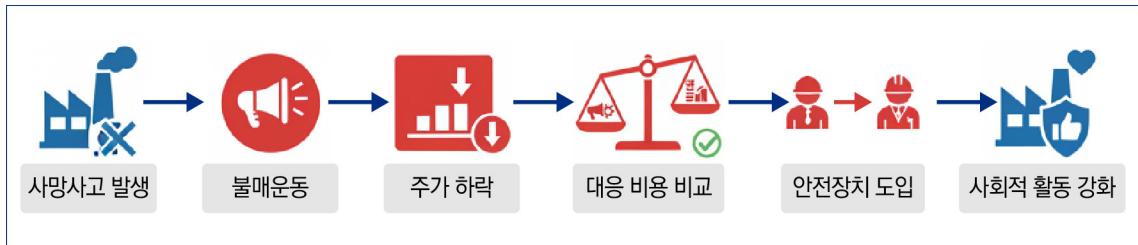


- Jensen(2001) 「Value Maximization, Stakeholder Theory, and the Corporate Objective Function」에 따르면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환경에서는 기업가치 극대화가 곧 사회 후생 극대화로 이어짐. 그러나 실제 경제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계몽된 가치 극대화(Enlightened Value Maxim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기업은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해 재무적으로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음
  - 요약하면, 외부효과의 존재로 인해 ‘이윤 극대화 = 사회 후생 극대화’라는 고전경제학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음
- **법과 규제 - 외부효과 내부화의 불안정한 해결책**
- 외부효과를 줄이는 근본적 방법은 외부효과를 기업의 내부 비용으로 전환(내부화)하는 것임
  - 가장 단순한 수단은 법·규제의 개입임
  - 예시: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
  - 그러나 법과 규제만으로는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기업마다 산업 구조·이해관계자 관계가 상이해 일률적 규제는 미세한 조정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임. 또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로비·법적 회피 수단 등을 활용해 규제의 실효성을 낮추기도 함
  - 따라서, 사회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법·규제를 보완하는 자발적인 시장 기반의 조정 메커니즘 등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함
- **ESG - 외부효과 내부화의 자본주의적 장치**
- 한편, ESG는 강제적 규제 대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도하는 자본주의적 장치임

- ESG는 법·규제와 다르게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간 이익·손해 조정의 결과물로서 작동함
- 예시 ① <사회적 활동 확대>  
 : 식품기업에서 사망사고 발생  
 → 사회단체 불매운동 → 주가 하락 → 주가 하락 손실보다 안전 투자비용이 적음  
 → 경영자는 주가 방어를 위해 안전 장치 도입 → 사회적 활동 강화

<도식 3> 사회적 활동 확대 케이스



- 예시 ② <사회적 활동 축소>  
 : 은행에서 외부압력으로 대규모 채무 탕감  
 → 이자수익 감소 → 주가하락 → 외국인 투자자 자본 이탈  
 → 경영자는 주가 방어를 위해 채무 탕감 중지 → 사회적 활동 축소

<도식 4> 사회적 활동 축소 케이스



- 이처럼 ESG는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 조정 메커니즘이며, 방향성(좋다/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임
- 결과적으로 ESG는 외부효과를 시장 내에서 재무적으로 내부화하도록 유도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조정장치로 기능함

## 본론 2: ESG에 대한 환경보호·사회공헌 중심 오해 현황 AI 분석

###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기사 데이터 AI 분석

- 분석 대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추출한 기사 키워드 데이터 (검색어: ESG)
- 분석 방법

구분	내용	비고
대상기간	2025년 3분기 (2025.07.01. ~ 09.30.)	최대 다운로드 가능 데이터 2만건과 분석 투입 AI 토큰 한도 고려하여 가장 최근 분기로 범위 설정
분량	분석 기간 내 기사 15,529건	-
AI 활용	구글 Gemini  프롬프트 ① (여부 판단) =AI("다음 키워드를 보고, 기업의 환경/사회 이슈 관련 활동이 직접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 등 재무적 영향과 연결되는 경우 'Yes', 단순히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으로만 언급되는 경우 'No'로만 분류하여 출력해주세요. 키워드: " & Bxxxxx)  프롬프트 ② (근거 판단) =AI("다음 키워드를 보고, 기업의 환경/사회 이슈 관련 활동이 비용/수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있다면 그 이유를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이라면 '해당 없음'이라고 출력해주세요. 키워드: " & Bxxxxx)	구글스프레드 시트의 AI함수 활용하여 아래 프롬프트 두 개 모두 재무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보수적으로 "No"로 판별

분석 원본 링크 : [클릭](#)하면 이동

	A	B	C	D	E
1	뉴스 식별자	키워드	외부효과 재무적 고려 여부	프롬프트 1	프롬프트 2
2	02100861 20250930121911001	임직원, 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 유공자, 관계자, 사회공헌	No	No	해당 없음
3	01700101 20250930145230001	제주도, 이나스프리, 기업참여, 제주, 이노비즈, 이노비즈, 이노비즈, 이노비즈	No	No	해당 없음
4	01700101 20250930232040001	임직원, 부산시, 부산, 위업, 상용근로자, 지자체, 중가세, Yes	Yes	Yes	해당 없음
5	01600601 20250930223428001	봉사활동, 환경, 소외계층, 지사장, 부총합사회복지관, 진	No	No	해당 없음
6	01600601 20250930223334007	지역사회,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위문품, 지원팀, 아동센터, 일반	No	No	해당 없음
7	04102008 20250930222409001	esg, 해진공, 해운사, 영고, 경영력, 해운업계, 안병길, bfc, Yes	Yes	Yes	ESG 활동으로 핵심업계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
8	01400351 20250930220604002	임직원, 부산, 노동자, 부산시, 우수사업, 임직원대상, 취약가 Yes	Yes	Yes	취약계층 고용 및 일자리 창출로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정부 인센티브 획득 가능
9	01400351 20250930220531001	봉선포, 국립공원공단, 해양쓰레기, 반려해변, 태안지사, es	No	No	해당 없음
10	01400351 20250930220345002	esg, 성남, 성남시, 단천, 신상진, 특별시, zero, 성남아트센터	No	No	해당 없음
11	01400351 20250930220311002	육주해, 나사렛대학교, 임무협약, 장애인, 간담회, esg, 나사	No	No	해당 없음
12	01400351 20250930220210001	신직원, 부산, 우수사업, 100만, 혁신을, 설명회, 진천, 환경의식, 진문우	Yes	Yes	RE100 및 ESS 도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업 이미지 향상
13	01501301 20250930203309001	상도종합기술, 지역사회, 장애인, 봉사자, 복지사, 최영수, ul	No	No	해당 없음
14	01501301 20250930203301002	식약공사, 전통시장, 울산, 한국식약공사, 활성화, 장바구니	No	No	해당 없음
15	01200201 20250930203054001	메가이비씨, 메가이비씨, 미세조류, 클러스터, 정화기, 이문성	Yes	Yes	미세조류 정화기 및 거래제 관련 사업은 신규 시장 창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6	01500101 202509302019420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만, esg, 사회공헌사업, 청소년	No	No	해당 없음
17	04100608 2025093020025001	county, renewable environmental, sustainable, reside, Yes	Yes	Yes	RE100, ESS 등 재생에너지 활용은 초기 비용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에 기여.
18	04102008 20250930191209001	동반성장, 협력사, esg, 관계자, 현대로템, 독일, dn술부선? Yes	Yes	Yes	ESG 경영을 통한 협력사 동반성장은 기업 가치 및 평판 향상, 공급망 안정화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9	02100351 20250930185304001	에그레드코리아, 단박질, 가공품, 한국가공협회, 위평회, 불	No	No	해당 없음
20	01400701 20250930184645001	세종, 이상기업, 세종시, 지역업체,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	No	No	해당 없음
21	02100501 20250930182942001	부산, 태산공약재단, 수상자, 복지사, 경남, 시상식, 특별상, No	No	No	해당 없음
22	01500701 20250930182758002	임직원, 부산시, 우수사업, 100만, 상용근로자, 지자체, 우수	Yes	Yes	패블라스트 재활용 신산으로 비용 절감 및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이 있음.
23	04104008 20250930180900001	esg, 특별시, 성남, 단천, 성남시, 신상진, zero, 안진영, 어린	No	No	해당 없음
24	04100078 20250930180900001	한신영력, 한진원, 봉사단, 한신, 국회사물한진원, 임직원, 2	No	No	해당 없음
25	02100311 20250930180205001	kb, 양종희, 협회회, kb금융, 가계금융, 손이영, 상반기, 국민	No	No	해당 없음
26	02100101 20250930175507002	편입교, 독자교, 주간교, 관리부, 편입부, 광교, 제작국, 디	No	No	해당 없음
27	02100701 20250930175147001	음주운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경기업, 비핵수, 경각심, No	No	No	해당 없음
28	04102008 20250930175045001	유계수, 안축도, 배달파트너, 간편식, 한신, 한술제, 겨울중	No	No	해당 없음
29	04100078 20250930174947001	티웨이항공, 부산, 항공권, 인천, 독일, 수상자, 근로자, 프랑	No	No	해당 없음
30	02100601 20250930173928001	esg, 성남, 손해물, 특별시, 성남아트센터, 단천, 성남시, 안?	No	No	해당 없음
31	02100201 20250930173918001	한이연, 본부장, 경영력, 경영진, 김기연, 한이연마케팅구연	No	No	해당 없음

2)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3qA2rzAFe8W2kCxLFriVtP2m-Cm2b91Aw5auORZF6-4/edit?usp=sharing>

○ 분석 결과

: AI 분석 결과 할루시네이션을 가정하더라도 상당수의 기사가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ESG를 단순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으로 기술하는 경향 존재

- 1)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AI가 판단(“Yes”)한 비중은 8,092건으로 전체 표본 15,529건 중 52.11%를 차지함
  - 2) 재무적 영향력 고려 없이 단순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술한 것으로 AI가 판단(“No”)한 비중은 7,437건으로 오류 제외 표본 15,529건 중 **47.89%**를 차지
  - 3)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을 확률을 고려할 경우에도 유의미한 수준의 No 비중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Wilson 분석에 따르면 **AI의 분석 결과의 80%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더라도 95%의 확률로 100건의 기사 중 약 6~15건의 기사가 ESG라는 용어를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됨
- 할루시네이션 50%로 가정할 경우 95%의 확률로 100건 중 약 17~33건

〈표 1〉 AI 할루시네이션 영향 - Wilson 95% CI 분석

Inputs					
Observed AI No proportion (%)			47.89%		
Total sample size (n)			15,529		
z for 95% CI			1.959963985		
Assumed hallucination rate (%)	Estimated true No (%)	Wilson 95% Lower (%)	Wilson 95% Upper (%)	Margin of Error (±%)	Expected true No count
10	<b>43.10%</b>	33.95%	54.70%	10.37%	6,693
20	<b>38.31%</b>	29.75%	49.33%	9.79%	5,950
30	<b>33.52%</b>	25.58%	43.92%	9.17%	5,206
40	<b>28.73%</b>	21.46%	38.47%	8.51%	4,462
<b>50</b>	<b>23.95%</b>	<b>17.39%</b>	<b>32.96%</b>	7.78%	3,719
60	<b>19.16%</b>	13.40%	27.37%	6.99%	2,975
70	<b>14.37%</b>	9.52%	21.68%	6.08%	2,231
<b>80</b>	<b>9.58%</b>	<b>5.79%</b>	<b>15.83%</b>	5.02%	1,487
90	<b>4.79%</b>	2.37%	9.68%	3.66%	744

○ 분석 한계

: 특정 기사의 내용이 재무적 영향을 고려했는지 여부는 주관에 따라 판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한편, 본 분석에서는 사람의 주관을 배제하고 일관되게 Gemini의 판별기준을 사용함. 따라서 개별 기사에 대한 판별은 주관에 따라 Gemini의 판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이런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프롬프트 결과물 중 일부라도 Yes일 경우 보수적으로 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판별함. 또한, 최종 결과물의 No 비중은 95% 신뢰수준 Wilson 분석 기준에 따라 할루시네이션 확률을 10~90%로 나누어 가정하여 해석함

## 결론 : ESG 인식 재정립 필요

- ESG를 단순히 환경보호 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본질적 오해
- ESG의 핵심은 외부경제효과를 재무적으로 내부화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익·손해를 조정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
-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효과의 시장 내 조정장치로서 ESG의 경제적 의미 존재
-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ESG를 환경보호, 사회공헌 등‘착한 이미지’ 중심 개념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존재
- AI 기반 인식 분석 결과,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다수의 담론 속에서 확인
- 향후 ESG 논의는 단순 환경·사회 이미지에서 벗어나, 외부경제효과의 재무적 내부화라는 통합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